

 <b>기획재정부</b>		<h1>보도자료</h1>	
<b>보도일시</b>	2021.12.7.(화) 10:30	<b>배포일시</b>	2021.12.7.(화) 08:00
<b>담당과장</b>	국고국 국유재산조정과장 노중현 (044-215-5250)	<b>담당자</b>	강중호 사무관 2482kjh@korea.kr

**「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」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**  
**-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'공공청사 + 생활SOC' 를 한 곳에 짓는다 -**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월 7일(화) 오전 10시 30분, 서울 도봉세무서에서 서울 강북구청장, 서울지방국세청장 등과 「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< 업무협약식 개요 >

- 일시 : '21. 12. 7(화) 10:30
- 장소 : 도봉세무서(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소재)
- 참석자 : 기획재정부(제2차관), 강북구(구청장), 국세청(서울지방국세청장), 캠프(공공개발본부 이사) 등

- 「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」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국유지에 국가의 공공청사와 지자체의 생활SOC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최초의 사례이다.

- 그간 정부는 「생활SOC 3개년 계획('20~'22)」을 수립('19.4월), 국유지에 지자체의 생활SOC 설치를 허용\*하는 한편, 국비보조비율 10%p 상향 등 지자체의 생활SOC 확충을 다각적으로 지원\*\*해 왔으나

\* 종전에는 국유지에 국가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었으나, '20.3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 설치 허용

\*\*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총 530건 선정(국비 1.5조원 지원)

-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생활SOC시설을 신축하려고 해도 적당한 부지를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.
  - 이에 국가가 기존의 노후화된 공공청사(도봉세무서)를 재건축하는 것을 계기로 지자체(서울 강북구)와 협업하여 생활SOC시설도 함께 건축하기로 하였다.
- 건축한 지 32년이 경과되었고 지하1층, 지상 4층(연면적 4,246㎡)인, 낡고 비좁은 도봉세무서 건물이 '27년 6월경에는 지하 3층, 지상 9층의 최신식 건물(연면적 17,500㎡)로 탈바꿈할 예정이다.
- 지상 건물은 도봉세무서 등 공공청사로 사용하여 그간 부족했던 민원사무 공간 등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와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제고하는 한편
  - 지하에는 서울 강북구가 수영장, 헬스장 등 주민체육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.
  - 본 사업에는 총 485억원이 투입될 예정인데, 지상의 공공청사는 국가(국유재산관리기금)가, 지하의 생활SOC시설은 서울 강북구\*가 신축비용을 각각 부담한다.

\* 주민체육센터 운영기간 중 국유지 대부료(공시지가의 2.5%, 연 1억원 수준)납부

-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
-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청사로만 사용하던 국유재산이 국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일석이조(一石二鳥)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
  - 앞으로도 국가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

## 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[mosfpr@korea.kr](mailto:mosfpr@korea.kr)



**참고**

**도봉세무서 복합개발 계획(안)**

□ (현황) 현재 도봉세무서로 사용중

구분	내용
소재지	○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17
기존 건물현황	○ 1989.1.16. 준공(32년 경과) ○ 부지면적 4,246㎡, 건물연면적 2,996㎡ (지상 4층)
	 

□ (건축계획) 청사(도봉세무서)+생활형SOC(수영장 등)

구분	내용	
규모	○ 부지면적 4,246㎡, 연면적 17,500㎡ (지하3층 / 지상9층)	
세부용도	○ 공공청사, 생활SOC	
개발계획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투시도</p> 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단면개념도</p> 